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환경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의 조절효과

이종석¹, 정득^{*}

¹한림대학교 경영학부, 한림경영연구소

An Influence of Adolescent's Self-Esteem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Life Satisfaction : Moderating Effect of Positive Self-Evaluation and Negative Self-Evaluation

Jongseok Lee¹, Deuk Jung^{1*}

¹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lly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3차년도(2012)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3학년 2,040명의 자아존중감과 환경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개인특성으로서 자아존중감을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에 대한 평가라는 별개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을 때, 환경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 평가수준의 조절효과가 존재하였다. 자아존중감을 두 평가차원의 수준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환경특성(부모, 친구, 학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을 수행한 결과, 긍정적 자아에 대한 평가가 높은 집단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많은 경로에서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부정적 자아에 대한 평가가 높은 집단의 경우, 긍정적 자아에 대한 평가가 높을 때 부정적 자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음(-)의 영향을 상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단일 차원의 개념이 아닌,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에 대한 평가라는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부정적 자아에 대한 낮은 평가가 반드시 긍정적 자아에 대한 높은 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심리 상담에 있어 부정적 자아 형성의 문제 해결과 함께 긍정적 자아 형성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self-esteem on the life satisfaction of 2,040 middle school senior students using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2 Data (KCYPS 2012) provid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path analysis of how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uch as parents, friends, and school, affect life satisfaction, is based on four groups of self-esteem, categorized by positive and negative self-evaluation levels. The analysis suggests that groups with higher levels of positive self-evaluation have closer relevance in more paths than other groups. Furthermore, in groups with higher levels of negative self-evaluation, negati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are offset by positive self-evaluation. These results suggest research associated with the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and their self-esteem should be performed according to two separate levels of self-esteem: positive self-evaluation and negative self-evaluation. Since low levels of negative self-evaluation doesn't necessarily guarantee high levels of positive self-evaluation, counseling for adolescents needs to have different tracks, addressing positive and negative self-evaluation levels.

Keywords : Adolescent,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Path Analysis, KCYPS 2012

*Corresponding Author : Deuk Jung(Hallym University)

Tel: +82-33-248-3160 email: deuk1226@hallym.ac.kr

Received August 3, 2015

Revised (1st September 21, 2015, 2nd October 7, 2015)

Accepted October 8, 2015

Published October 31, 2015

1. 서론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평가적 신념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좌우하는데 기본적으로면서도 영향력이 높은 측정항목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 특성을 보이는데,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있는 존재로 여겨 긍정적 평가를 한다[1]. 뿐만 아니라 쾌활한 정서 상태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2],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며[3], 성취동기 수준이 높다[4]. 이러한 특성은 환경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들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고[5,6] 삶에 만족하는 정도가 낮아[7], 자신을 무능하고 가치 없다고 여겨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우울증이나 폭력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이 주어진 환경을 잘 적응하고 건강한 정서 발달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심리 특성이다.

청소년 발달과정에 관한 전통적 심리학에 바탕을 둔 상담이론은 적응 혹은 긍정적 발달보다는 부적응 혹은 병리적 발달에 초점을 두어 왔다. 때문에 심리학의 주된 목표는 비행이나 범죄와 같은 청소년 문제의 발생 원인이 되는 부적응 발달 증세를 완화시켜 평균수준의 적응을 유도하는 것이었다[8]. 하지만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부정적 정서로 인한 부적응의 문제 해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9], 긍정적 정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자아존중감의 개념 및 측정에 관한 연구에도 반영되었다. 전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은 부정적 자아평가와 긍정적 자아평가를 양극단으로 하는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자아존중감의 측정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Rosenberg의 척도는 자아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정도를 묻는 5개 문항과 부정적 평가 정도를 묻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10].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이들 10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하게 되는데, 부정적 평가 문항의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 평가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이다(Fig. 1-A 참조).

그러나 이미리리는 지금까지 자아존중감을 측정함에 있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부정적 자아에 대한 낮은 평가가 긍정적 자아에 대한 높은 평가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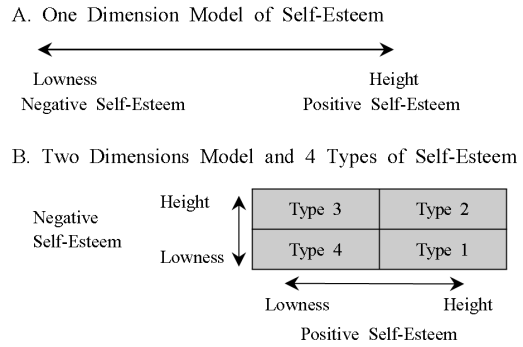


Fig. 1. One Dimension and Two Dimensions Model of Self-Esteem

즉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에 대한 평가를 독립적인 별개의 차원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간의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는 독립적이며, 이와 관련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 [1,11]을 고려할 때, 부정적 자아 평가와 이에 따른 부적응 문제의 해결이 바로 긍정적 자아 평가와 적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병삼도 자아존중감을 두 차원으로 연구 분석해야 함을 제기하였는데[12], 이와 같은 연구들이 타당성이 있다면 긍정 정서의 확장-구축 이론과 부정 정서의 관계[13]가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즉 긍정 정서처럼 긍정적 자아가 개인의 행동을 확장시키며 부정적 자아를 상쇄시키는데 대한 연구로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전통적 방법인 단일 차원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Fig. 1-B와 같이 긍정적 자아평가의 두 수준과 부정적 자아평가의 두 수준을 고려한 4가지 유형의 모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두 평가 수준이 다른 집단의 유형들이 부모친밀도, 친구친밀도, 교사친밀도와 학습적응도가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Fig. 2와 같이 경로분석하여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와 관련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₁ : 개인특성으로서 자아존중감은 환경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변수가 된다. 즉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에 대한 평가수준에 따른 집단 유형별로 환경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다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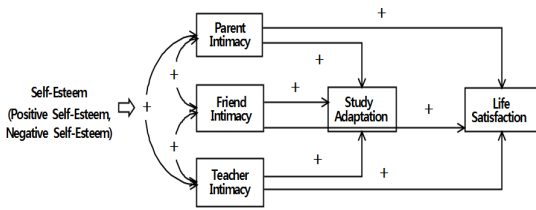


Fig. 2.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2(3차년도)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2010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패널을 선정하여, 매년 이들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3학년 패널 중 무응답 항목이 있는 표본을 제외한 2,040명(남학생 1,024명, 여학생 1,016명)을 연구대상으로 했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개인특성으로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환경특성으로 부모환경, 친구환경, 그리고 교육환경 변수를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들은 리커트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변수에 대한 의미가 높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 2, 1, -1, -2점 척도로 역변환하여 사용하였다.

2.2 통계분석

통계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SPSS 19.0과 AMOS 18.0을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설문문항들로 구성된 측정변수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측정하였다. 2) 연구변수들의 선형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수 분석을 수행하였고, 기술통계량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3) 자아존중감의 유형을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그 분포를 비교하였다. 4) 환경특성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개인특성의 자아존중감이 조절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유형별로 환경변수들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분석을 통해 경로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경로의 직접, 간접, 전체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변수의 신뢰도와 구성개념 적합도

측정변수의 개념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특성(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과 환경특성(부모, 친구, 학교)의 문항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각각 Table 1, Table 2와 같다. Table 1은 청소년의 개인특성으로서 자아존중감 10문항과 삶의 만

Table 1.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n Individual Characteristic

Measured Variables		Ref.	F1	F2	F3	communality	cronbach'a
PSE	I feel that I'm a valuable person like other people	[10]	0.743	-0.265	0.019	0.622	0.804
	I can do something as much as others		0.736	-0.052	0.140	0.563	
	I feel that I have many talents		0.734	-0.125	0.296	0.642	
	I have positive attitude to me		0.622	-0.283	0.326	0.573	
	I'm satisfied with me		0.570	-0.094	0.496	0.579	
NSE	Sometimes I think that I'm an unuseful person anywhere	[10]	-0.116	0.833	-0.032	0.709	0.811
	Sometimes I feel that I'm a useless person		-0.119	0.790	-0.241	0.697	
	I tend to feel that I'm a failure		-0.097	0.727	-0.269	0.610	
	I feel that I have not been proud of something		-0.305	0.710	-0.058	0.600	
LS	I have not been many worries	[14]	0.077	-0.076	0.813	0.672	0.814
	I think my life happy		0.283	-0.234	0.773	0.733	
	I am pleasant to live		0.304	-0.228	0.734	0.683	
eigen value			4.987	1.581	1.115	accrue(%)	
variance(%)			41.56	13.18	9.29	64.03	

KMO's MSA = 0.892, Bartlett Sphericity test : p-value < 0.001

Note: PSE, positive self-evaluation; NSE, negative self-evaluation; LS, life satisfaction;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n Environmental Characteristic

Measured Variables		Ref.	F1	F2	F3	F4	com.	cronbach'a
PI	My parents keep my body and clothes clean	[15]	0.852	0.149	0.084	0.090	0.764	0.809
	My parents take care of me when I am sick		0.814	0.196	0.073	0.100	0.717	
	My parents are interested in my school		0.791	0.191	0.087	0.133	0.687	
FI	My friends makes me understand better	[16]	0.141	0.832	0.117	0.104	0.736	0.882
	My friends listen to what I said		0.201	0.808	0.088	0.121	0.715	
	I talk to my friends about my trouble		0.068	0.807	0.125	0.061	0.676	
	I can talk to my friends when I open my heart		0.086	0.789	0.091	0.071	0.644	
	My friends respect my thought when I talk to them		0.203	0.786	0.117	0.130	0.690	
TI	I'm glad when I see teacher outside of school	[17]	0.033	0.123	0.817	0.136	0.702	0.841
	I feel comfortable when I talk to teacher		0.030	0.179	0.789	0.155	0.679	
	My teacher is kind to me		0.126	0.066	0.757	0.189	0.629	
	I hope my teacher can be my teacher next year		0.081	-0.012	0.740	0.079	0.561	
	I greet my teacher delightfully		0.045	0.217	0.702	0.237	0.598	
SA	I understand class materials	[17]	0.110	0.098	0.132	0.804	0.686	0.776
	I can do my homework		0.101	0.052	0.116	0.782	0.638	
	I ask when I don't understand class subjects		0.099	0.156	0.173	0.701	0.555	
	I enjoy class activities		0.041	0.096	0.267	0.680	0.544	
eigen value			1.436	5.591	2.512	1.683	accrue(%)	
variance(%)			8.44	32.89	14.78	9.90	66.01	

KMO's MSA = 0.874, Bartlett Sphericity test : p-value < 0.001

Note: PI, parent intimacy; FI, Friend intimacy; TI, teacher intimacy; SA, study adaptation

족도 3문항을 요인분석으로 수행한 결과이다. 자아존중감으로서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독립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3개 요인의 신뢰도는 각각 0.804, 0.811, 0.814로서 권장기준인 0.7을 상회하였다. Table 2는 청소년의 환경특성에 관한 20개 설문문항을 요인분석으로 수행한 결과이다. 친구친밀도와 관련된 의사소통과 신뢰는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추출된 4개 요인의 신뢰도는 각각 0.882, 0.841, 0.776, 0.809로서 모두 권장기준인 0.7을 상회했다.

3.2 변수의 상관관계와 자아존중감 유형에 따른 분포

연구변수들의 선형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와 함께,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긍정적 자아평가와 상관관계가 가장 강한 변수는 삶의 만족도로 0.583이었고 다음으로 학습적응도(0.368)였다. 부정적 자아평가도 동일하게 삶의 만족도(-0.411)가 가장 강한 음의 상관을 보였고 다음으로 부모친밀도인 -0.242를 나타냈다.

연구대상 2,040명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개인특성으로서 자아존중감의 두 차원인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별개의 요인으로 분류한 분포는 Fig. 3과 같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PI	FI	TI	SA	PSE	NSE	LS
PI	1						
FI	0.361***	1					
TI	0.196***	0.262***	1				
SA	0.267***	0.264***	0.398***	1			
PSE	0.294***	0.366***	0.292***	0.368***	1		
NSE	-0.242***	-0.212***	-0.072**	-0.187***	-0.444***	1	
LS	0.253***	0.307***	0.224**	0.283***	0.583***	0.411***	1
Mean	1.107	0.944	0.611	0.532	0.708	-0.473	0.545
SD	0.772	0.732	0.902	0.882	0.753	1.002	0.979

Note: PI, parent intimacy; FI, Friend intimacy; TI, teacher intimacy; SA, study adaptation; PSE, positive self-evaluation; NSE, negative self-evaluation; LS, life satisfaction; SD, standard deviation
** p < 0.01, *** p < 0.001

도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가장 작은 원으로 나타나고, 10명 단위로 도수가 커짐에 따라 원을 크게 나타냈다. 예를 들면 (긍정적 자아평가, 부정적 자아평가) = (1.00, -1.00) 수준인 경우가 89명으로 가장 많았고, (0.67, -1.00) 수준인 경우가 75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두 자아평가의 상관계수는 -0.444이었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우하향 대각선(↘) 방향으로 큰 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하지만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평가차원의 수준을 기준으로 자아존중감의 인식유형을 다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Fig. 3 참조). ① 유형 1 (1,267명): 긍정

적 자아평가 수준 높고(> 0)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 낮은(≤ 0) 경우, ② 유형 2 (324명):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 높고(> 0)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 높은(> 0) 경우, ③ 유형 3 (221명):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 낮고(≤ 0)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 높은(> 0) 경우, 그리고 ④ 유형 4 (228명):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 낮고(≤ 0)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 낮은(≤ 0)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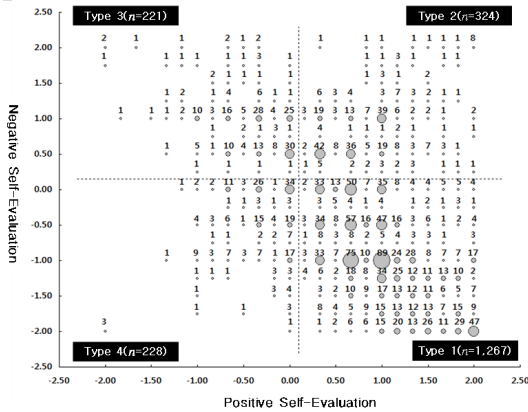


Fig. 3. Distribution of Types on Self-Esteem's Level

3.3 자아존중감 유형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절효과

연구모형은 Fig. 2에서 설계한 것처럼 자유도(df)가 0인 중만모형(Saturated Model)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쟁모형인 제약모형 1과 제약모형 2를 비교 검토하였다. 제약모형 1은 학습적응도에 부모, 친구, 교사친밀도 경로계수가 동일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제약모형 2는 모든 경로가 동일한 계수값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자존감 집단 유형에 따라 연구모형의 경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제약모형들의 카이스퀘어 검정값과 적합도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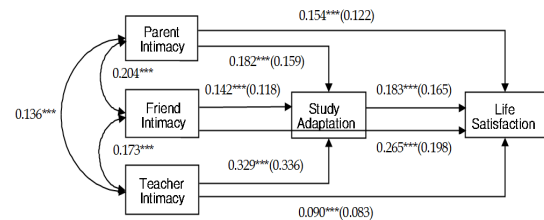
Table 4. Results of model fit and validity

Model	χ^2	df	CFI	NFI	TLI	RMSEA
constrained 1	35.392***	2	0.974	0.973	0.868	0.091
constrained 2	71.144***	6	0.949	0.944	0.914	0.073

Note: CFI, comparative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p < 0.001$

검정 결과 제약모형들은 포화판별 연구모형의 위계적 모형으로 카이제곱 차이통계량($\Delta\chi^2$)에 따른 유의확률이 0.001보다 작아, '두 위계적 모형의 적합도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제약모형이 단 순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연구모형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제약모형 1은 $\Delta\chi^2/df = 17.696$ ($p < 0.001$)으로 자존감 집단 유형별 학습적응도 경로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제약모형 2도 $\Delta\chi^2/df = 11.857$ ($p < 0.001$)로 경로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적합도는 제약모형 1은 TLI가 권장수준 0.9보다 낮았지만 CFI와 NFI가 0.95를 상회했으며, RMSEA는 0.091로 근사 오차의 수준이 적절하였다.

제약모형 2는 CFI, NFI, TLI 모두 0.9를 상회했으며 RMSEA도 0.073으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은 자존감 집단 유형별로 경로의 차이가 유의한 모형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와 환경특성 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Fig. 4에 제시하였다.



Note: → unstandardized coefficient(standardized coefficient) of statistical significant path, ↔ covariance, *** $p < 0.001$

Fig. 4. Results of Path Analysis

경로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모든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특성 변수들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모든 경로가 지지되었다. 청소년들이 학습활동을 적응하는 데에는 교사친밀도가 부모친밀도와 친구친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2배 이상 높은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자아존중감 집단 유형에 따라 환경특성 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경로분석을 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먼저, 학습적응도에 영향을 주는 대인관계 변수들을 자아존중감 집단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형 1 집단(긍정적 자아 > 0, 부정적 자아 ≤ 0)에서만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유형 2, 3, 4 집단들은 학습적

응도에 교사친밀도의 경로만 유의하였고 부모친밀도, 친구친밀도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학습적응도에 있어서 교사친밀도가 중요하며 긍정적 자아 평가 수준이 높고 부정적 자아 평가 수준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과 달리 학습활동을 부모와 친구친밀도의 상호작용을 통해 훨씬 유기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특성 변수들의 경로분석 결과를 보면, 각 집단 유형별로 유의한 경로가 달랐다. 이 결과는 청소년들이 평가하는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 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Results of Path Analysis about Each Type

Path	Type 1 ¹⁾		Type 2		Type 3		Type 4	
	B ²⁾	p ³⁾	B	p	B	p	B	p
PI→SA	0.251	<0.001	0.065	0.273	0.038	0.568	-0.015	0.825
FI→SA	0.098	0.004	0.122	0.094	0.070	0.290	0.081	0.235
TI→SA	0.278	<0.001	0.412	<0.001	0.284	<0.001	0.329	<0.001
PI→LS	0.163	<0.001	0.030	0.644	-0.009	0.888	0.028	0.733
FI→LS	0.162	<0.001	0.280	<0.001	0.164	0.010	0.090	0.262
TI→LS	0.088	<0.001	0.158	0.017	0.016	0.794	0.004	0.962
SA→LS	0.074	0.011	0.171	0.005	0.128	0.048	-0.061	0.435

Note: PI, parent intimacy; FI, Friend intimacy; TI, teacher intimacy; SA, study adaptation; PSE, positive self-evaluation; NSE, negative self-evaluation; LS, life satisfaction

1) Type 1, PSE > 0, NSE ≤ 0; Type 2, PSE > 0, NSE > 0; Type 3, PSE ≤ 0, NSE > 0; Type 4, PSE ≤ 0, NSE ≤ 0

2) un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3)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유형 1, 2 집단은 긍정적 자아가 높은 청소년들인데 부정적 자아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의 청소년들이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부모친밀도의 경로가 지지되지 못하였다. 또한, 유형 2, 3 집단은 부정적 자아가 높은 청소년들인데 긍정적 자아가 높은 청소년들의 집단(유형 2)이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교사친밀도의 경로가 지지되어 있음을 보였다. 즉, 긍정적 자아평가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지각한 청소년들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환경특성 변수들의 경로가 유의하게 지지되어 긍정적 자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이며, 부정적 자아평가의 음(-)의 영향을 상쇄하여 환경특성 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결정요인임을 나타내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특성 변수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전체효과를 분석한 Table 6의 결과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Table 6. Total Effects of Each Type

	LS	PI	FI	TI	SA
Type 1 (n=1,267)	DE	0.163***	0.162***	0.088***	0.074*
	IE ¹⁾	0.019*	0.007**	0.021**	-
	TE ²⁾	0.182***	0.169***	0.109***	0.074*
Type 2 (n=324)	DE	0.030	0.280***	0.158*	0.171**
	IE	0.011	0.021	0.070**	-
	TE	0.041	0.301***	0.228***	0.171**
Type 3 (n=221)	DE	-0.009	0.164**	0.016	0.128*
	IE	0.005	0.009	0.036*	-
	TE	-0.004	0.173**	0.052	0.128*
Type 4 (n=228)	DE	0.028	0.090	0.004	-0.061
	IE	0.001	-0.005	-0.020	-
	TE	0.029	0.085	-0.016	-0.061

Note: PI, parent intimacy; FI, Friend intimacy; TI, teacher intimacy; SA, study adaptation; LS, life satisfaction; DE, direct effect; IE, indirect effect; TE, total effect

1) IE = un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of each variables and study adaptation × un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of study adaptation and life satisfaction,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sobel test.

2) TE = DE + IE

3) * p < 0.05, ** p < 0.01, *** p < 0.001

특히 자아존중감 유형과는 무관하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전체효과를 보면, 친구친밀도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고, 다음으로 부모친밀도, 학습적응도, 교사친밀도 순이었다. 그러나 유형 1 집단(긍정적 자아 > 0, 부정적 자아 ≤ 0)은 부모친밀도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고 친구친밀도, 교사친밀도, 학습적응도 순이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로 평가함에 있어 이 두 차원을 단일차원으로 해석할 경우 삶의 만족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유형 2 집단(긍정적 자아 > 0, 부정적 자아 > 0)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친밀도의 전체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유형 3 집단(긍정적 자아 ≤ 0, 부정적 자아 > 0)은 친구친밀도와 학습적응도의 전체효과만 유의하였다. 그리고 유형 4 집단(긍정적 자아 ≤ 0, 부정적 자아 ≤ 0)은 모든 환경특성 변수들의 전체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3차 자료인 중학교 3학년 학생들(남학생 1,024명, 여학생 1,016명, 총 2,0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환경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데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가장 영향력 있는 개인특성으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였고

[18], 환경특성 변수로 가정환경의 부모친밀도, 학교 및 또래 영역에 친구친밀도, 교사친밀도, 학습적응도로 하였다[19]. 특히 자아존중감은 그 측정에 있어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로 구분하여 두 변수를 높고 낮음의 수준 차이에 따라 집단별로 나누어 환경특성 변수와 함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은 양극단의 단일차원이 아닌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로 대별[1]되었고 그 수준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Table 1과 Fig. 3 참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의 요인들을 측정하는 측정변수들의 공통성은 모두 0.5 이상을 상회하였고 각각의 신뢰도는 0.804, 0.81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개인 특성인 자아존중감의 두 평가 척도(긍정적 자아평가, 부정적 자아평가)에 대한 잠재요인들의 구성개념 타당성과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카이스퀘어 검정통계량이 520.8 ($p < 0.001$), CFI 0.950, NFI 0.945, TLI 0.936, RMSEA 0.067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것은 자아존중감이 단일 차원이 아닌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의 두 차원으로 구성됨을 보여준 실증적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 자아평가의 높고 낮음(x 축)과 부정적 자아평가의 높고 낮음(y 축)에 따라 분포(Fig. 3)를 그려본 결과 4가지 유형의 그룹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의 상관계수는 -0.444로 우하향 대각선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Table 3 참조), 분포를 통해 살펴보면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동일하게 높을 때,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낮은 유형 1(1,267명)과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이 높은 유형 2(324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높고 낮음의 단일차원으로 구분하고 해석하기보다 청소년들의 심리와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유형으로 자아존중감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삶의 만족도를 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연구결과[1,11,12]와 일치되면서도 자아존중감을 더 세분화시켜 연구하고 해석하는 실증적 기초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환경변수들의 경로는 자아존중감 집단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 조절하는

효과가 있었다(Fig. 4와 Table 5 참조).

환경변수들이 모두 유의하게 지지된 경로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형 1의 청소년들이었으며,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가 모두 낮은 유형 4(긍정적 자아 ≤ 0 , 부정적 자아 ≤ 0)의 청소년들은 환경변수들의 경로가 모두 지지되지 못하였다. 즉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들의 유기적인 경로를 지지하는 결정요인은 긍정적 자아 수준이었다. 부모친밀도는 유형 1의 청소년들에게만 유의한 경로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부모관계를 통해 삶에 만족함을 보였다. 그리고 교사친밀도는 긍정적 자아 수준이 높은 유형 1, 2 집단에서만 유의하여 교사친밀도는 긍정적 정서와 관련있는 변수였다. 유형 1과 2 집단 청소년들은 긍정적 자아 수준이 0보다 큰 경우로 부정적 자아 수준이 다른 경우인데, 두 유형의 학습적응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들의 지지된 경로를 보면, 유형 1은 모두 유의한 경로였지만, 부정적 자아 수준이 0보다 작은 유형 2는 친구와 부모친밀도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가 보였다. 이것은 긍정적 자아 평가수준이 높은 청소년일 경우, 부정적 자아 평가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를 통한 삶의 만족도의 경로가 축소됨을 의미한다[13]. 그리고 유형 2와 3 집단 청소년들은 부정적 자아 수준이 동일하게 높고, 긍정적 자아 수준이 다른 경우이다. 두 유형의 유의한 경로를 보면, 긍정적 자아 수준평가가 높은 집단이 유의한 경로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부정적 자아 평가수준이 동일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긍정적 자아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를 통한 삶의 만족도의 경로가 훨씬 유기적으로 확대되고 지지되었다[13]. 뿐만 아니라, 긍정적 자아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가 대인관계를 축소시키는 음(-)의 영향을 완화시켰다. 이 결과는 긍정자아와 부정자아의 관계를 조명한 Fredrickson의 연구결과[13]와 일치된 것으로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평가가 대인관계와 삶의 만족도를 축소시키는 음(-)의 영향을 긍정적 자아평가가 수준을 높임으로 완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양극단의 단일차원이 아닌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의 유형에 따라 환경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또한 부정적 자아 형성을 감소시키고 해결하려는 것보다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확대시키는 것이 대인관계와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밝혔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와 발달이 환경에 적응하고 유기적인 삶의 만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의 유형에 따른 상담과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긍정적 자아평가 차원에서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향후 가정과 학교 현장에서 질적연구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연구과제이다. 또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어 7차에 걸친 패널조사가 완료된 후에 종단 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ee-Ry Lee, "Relationships of Self-Esteem with Family-, Friend-, School-, Leisure-, and Job-Related Variables in Early Adolescence: Focusing on Positive and Negative Self Evaluation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6, No.2, pp. 263-293, 2005.
- [2] Ae-Gyeong Kim, "The effects of parental conflicts, social supports, locus of control orientation on early adolescents' self-esteem",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 10, No.2, pp.351-372, 2003.
- [3] Hee-Hwa Kim, "The Relation between Bullying-Victimization and Adolescents' Self-Esteem: The Implication of Peer Suppor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40, No.9, pp.47-61, 2002.
- [4] Seong-Heun Hong, Hyun-Sim Do, "Mother-Adolesc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Self-esteem as related to their Achievement Motiva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40, No.12, pp.145-157, 2002.
- [5] Hee-Og Sim, "Factors Influencing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 Behaviors in Late Elementary School Children :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18. No.1, pp.39-52, 1997.
- [6] Jong-Kuk Yang, Chung-Ki Kim, "Relationships among Delinquent Risk Factors, Protective Factors and Recidivism of Juvenile Delinquency",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10, No.2, pp.101-121, 2002.
- [7] Bo-Gee Byun, Suck-Gi Kang, "Research Articles : A Study of Adolescents' Self-Esteem and Hostility",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9, No.3, pp.269-291, 2002.
- [8] Jin-Young Kim, Young-Gun Ko, "Positive Clinical Psychology: Focusing on Mental Fitness and Positive Psychotherap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15, No.1, pp.155-169, 2009.
- [9] Aspinwall, Lisa G. & Staudinger, Ursula M., A Psychology of Human Strengths: Fundamental Questions and Future Directions for a Positive Psychology (Fundamental Questions and Future Directions for a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DOI: <http://dx.doi.org/10.1037/10566-000>
- [10]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65.
- [11] Larsen, R.J & Ketlaar, T., "Personality and susceptibility to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1), pp.132-140, 1991.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61.1.132>
- [12] Byong-Sam Jung, "An Analysis of the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Adolescent Self-Esteem", Studies on Korean Youth, Vol.21, No.4, pp.5-30, 2010.
- [13] Fredrickson, B. L.,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 pp.218-226, 2001.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56.3.218>
- [14] Sin-Yung Kim etc., Korean Adolescent Development Index Research,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6.
- [15] Myo-Yeon Huh,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2000.
- [16] Armsden, G. C., & Greenberg M. T.,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pp.427-454, 1987.
DOI: <http://dx.doi.org/10.1007/BF02202939>
- [17] Sun-Hee Kim, Kyung-Yeon Kim, "Development Behavior Problem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16, No.4, pp.155-164, 1998.
- [18] Hyo-Jung Park, Eun-Kyoung Yeon, An Analytical Study on the Life and Culture of Korean Secondary School Students, Korean Indi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3.
- [19] Ui-Chol Kim, Young-Shin Park,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Korean adolescents and adults at home, school, work and leisure setting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9, No.4, pp.973-1003, 2004.
DOI: <http://dx.doi.org/10.5124/jkma.2004.47.10.973>

이 종 석(Jongseok Lee)

[정회원]



- 1995년 2월 : KAIST 경영과학과 (경영학 석사)
- 2003년 2월 : KAIST 경영공학과 (경영학 박사)
- 2004년 7월 ~ 2005년 8월 :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 2005년 9월 ~ 현재 :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경영전략, 통신산업, 의료산업

정 득(Deuk Jung)

[정회원]



- 2011년 3월 :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박사과정
- 2005년 2월 ~ 현재 : 장승감리교회 목사

<관심분야>

경영전략, 청소년 문화